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②

虛空但有名 亦無相貌 取不得
허공단유명 역무상모 취부득
是捉空不得 除此心外 竟佛終不得也
시착공부득 제차심의 역불종부득야
佛是自心作得 因何離此心外
불시자심작득 인하이차심의
竟佛 前佛後佛 只言其心 心即是佛
역불 전불후불 지안기심 심즉시불
佛即是心 心外無佛 佛外無心
불즉시심 심의무불 불의무심
若言心外有佛 佛在何處
악인심의유불 불재하처
心外既無佛 何起佛見 透相誑惑
심외기무불 하기불견 체상광혹
不能了本心 故他無情物攝 無自由
불능요본심 피타무정물섭 무자유
若也不信 自誤無益
악야불신 자광무익

부처는 허물이 없으나 중생이 잘못 되어 자기 마음이 부처인줄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인줄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다.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못하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다만 바깥의 부처는 모두 자기 마음이 부처인줄을 몰라서이다. 그러므로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 열불하지도 말라. 부처는 경도 읽지 않으며, 부처는 계도 지니지 않으며, 부처는 계를 범하지도 않으며, 부처는 지니는 것도 범하는 것도 없으며, 또한 선악을 짓지도 않는다.

若欲見佛 須是見性即是佛
악욕역불 수시견성즉시불
若不見性 念佛誦經持齋持戒
악불견성 염불송경지재지계
亦無益處 念佛得因果 誦經得聰明
역무익처 염불득인과 송경득총명
持戒得生天 布施得福報
지계득생천 보시득복보
竟佛終不得也 若自己不明了
역불종부득야 악자기불명료
須參善知識 了却生死根本
수참선지식 요각생사근본

부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 마음 떠나 어찌 부처를 찾겠는가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며 마음 떠나 부처 없고 부처 떠나 마음 없다. 만약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없다면 어찌 부처의 견해를 낼 수 있겠는가? 이는 서로를 속여서 본심(本心)을 알지 못하고 무정물(無情物 : 佛像 따위)에 얽매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만약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아무 이익이 없다.

수참선지식 요각생사근본
若不見性 即不名善知識
악불견성 즉불명선지식
若不如此 縱說得十二部經
若不如此 縱說得十二部經
악불여차 종설득십이부경
亦不先死生 輪迴三界受苦
역불먼생사 윤회삼계수고
無出期時 無出期時

만일 부처를 찾으려면 견성(見性)해야 곧 부처가 된다. 견성하지 못하고 열불하거나 경을 읽거나 재계(齋戒)를 지키거나 계를 지키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다. 열불은 왕생하는 인과를 얻고, 경을 읽으면 총명해지며,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고, 보시하면 복의 과보를 받지만 부처를 찾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했으면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깨쳐야 한다. 만약 견성하지 못했다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12부 경도 다 외다 해도 생사를 벗어날 수 없고, 삼계를 윤회하며 고통을 받되 벗어날 기약이 없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佛無過患 衆生顛倒不覺
불무과환 중생전도불각
不知自心是佛 若知自心是佛
부지자심시불 악지자심시불
不應心外覓佛 佛不度佛
불응심외역불 불부도불
將心覓佛 不識佛
장심역불 불식불
但是外佛者 盡是不識自心是佛
단시외불자 진시불식자심시불
亦不得將佛禮佛 不得將心念佛
역부득장불예불 부득장심염불
佛不誦經 佛不持戒 佛不犯戒
불불송경 불불지계 불불범계
佛無持戒 亦不造善惡
불무지계 역불조선악

한국 불교의 자랑거리는 한둘이 아니다. 16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도 그러하거나, 우리 민족이 일구어낸 문화 유산의 대부분이 불교 문화가 꽃피워낸 것들이라는 점도 그렇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장경이라 일컬어지는 '고려대장경'은 이제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전 인류의 기쁨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불교가 온전한 우리말 경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앞의 자랑을 무색케 한다.

한글대장경 연내 완간돼요

월운스님 동국역경원 원장

하지만 이제는 좀더 당당하게 한국 불교의 공지를 말해도 될 것 같다. 올해 안으로 '한글대장경'이 완간되기 때문이다.

입춘을 하루 앞둔 3일 늦은 오후, 한글대장경의 산실인 동국역경원(이하 역경원)에서 월운 큰스님을 뵈었다. 불교의 생활화를 꾀함에 있어, 불경의 대중화와 그것의 전제조건인 한글화의 중요성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글대장경 연내 완간돼요”

“한글대장경”의 완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각별할 것 같은데요.

▲ 고유의 말과 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1600년이라는 역사로 본다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지요. 한국 불교 차원에서는 물론이지만 문화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대 교체 또는 새로운 문화적 국면에 대응할 기본본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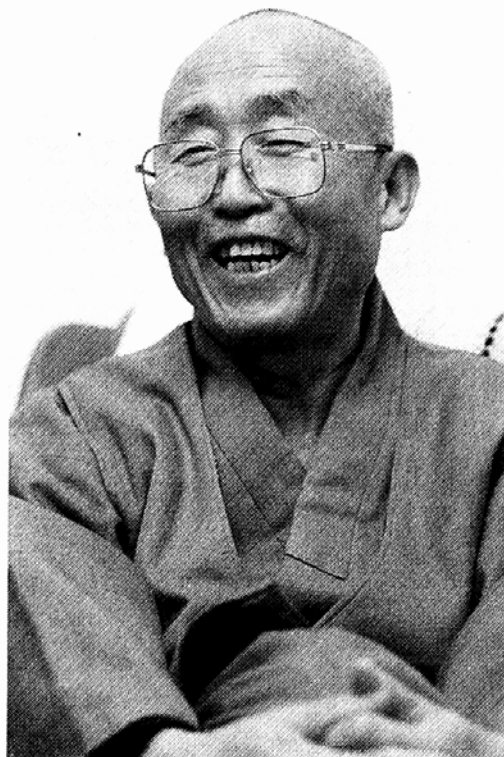
불교 내부를 보더라도 한문을 멀리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불교의 근본 정신이 숨겨질 수 없어요. 지금도 불교 의식을 행하는 곳이나 포교 현장에 가면 불교 교리에 위배되는 부분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축원을 할 때도 ‘~하게 해주소서, ~하게 하옵소서’ 하는 식입니다. 이런 기독교식이에요. 불교의 ‘발원과 가피’는 그것과 다릅니다. ‘~하겠습니다’하고 스스로 원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만 불보살의 가피도 따르는 것이지요. 고갈 쓰고 고을 하는 무당 놀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많은 것들이 일상화되는 점이 더 큰 문제예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역경(譯經)’이 중요한 겁니다. 신행의 근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언어가 장벽이 돼서는 곤란하지요.

— 아무튼 새로운 세대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닦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니만큼, 소요 시간이나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으로 역경원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 35년간 세뭇한 결과예요. 지난해까지 288권이 나왔는데, 올해 안으로 30여 권 정도가 더 나오면 1차로 완간이 됩니다. 비용은 1천부 제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제작비 1종당 3천만원이예요. 곧이 셈을 안 해도 어느 정도의 자금이 투자됐다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굳이 1차리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역경원의 설립 목적이 ‘고려대장경’의 번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지

- 1928년 경기 정다산
- 49년 운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 56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조
- 63년 미산대 철학과 조
- 59~61년 동도사 경사
- 65년 대한불교조계종 역경위원
- 79~93년 중앙승가대 교수
- 83년~불교전문통신 강원 원장
- 93년~동국역경원 원장
- 현재 동선사에 주석



않은 한역 경전이나 범어, 발리어 경전 그리고 고승들의 문집을 번역하는 일까지 맡아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다 마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니까,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고려대장경’ 번역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다시 손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판을 낼 생각입니다.

— 일을 진행하시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어려운 점이 참 많았죠. 현실적으로는 인력난과 재정난이 심했어요. 그야말로 양난이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한 어려움은 종도들의 무관심이더라고요. 역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정해요. 하지만 돌아서면 그만이지요.

그래도 94년 이후부터는 종단에서도 일년에 1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국에서도 얼마간 지원을 해요. 종단의 지원은 물론이고요. 그밖에도 현대종이나 보덕학회 같은 곳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론 완간 이후의 사업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마 은사하신 운허 스님의 강한 원력이 아니었다면 이만큼 끌고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무관심하긴 해도 비방과 해방은 없었어요. 그리고 설립 당시부터 조계종단의 사업으로 하되 소속은 동국대 부속으로 했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운영과 관리를 통해서 말함으로써 재정을 절감하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돌아서면 그만이지요.

을 수 있었어요. 조계종단 차원의 사업 중에서도 35년간이나 지속된 것은 이것 말고 없을 겁니다.

— 세세한 말씀을 다 들어보지 않아도 그 동안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라도 회항을 보게 된 것은, 역경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니 한국 불교의 역경사가 궁금해지는데요.

▲ 조선 세조 때의 간경도감을 시작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 뒤로 부처자들을 위한 언해본이 나오곤 했는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근자에도 개별적인 작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경·율·론 삼장에 걸쳐 체계적으로 번역을 한 것은 역경원이 처음이라고 봐야겠지요.

— 현대적 의미의 경전 한글화 역사는 역경원의 역사라고 봐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 그렇습니다. 1964년에 설립된 후 이듬해인 65년부터 김달진 선생의 잡아함경을 시작으로 매달 2~3권, 매년 20~30권을 냈어요. 올해 안으로 300권을 출격시킬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결코 자랑삼아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까. 아까도 1차 완료라고 했는데, 일단 번역을 마쳤다는 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할 일이 있고요.

— 또 할 일이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 분류 색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쓰임새를 높이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를 시도하고 인터넷에도 올리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올리지는 얘기들도 하는데, 성급한 접근은 화를 불러오. 크게 볼 때, 이번의 번역 원료는 원고를 마친 수준입니다. 퇴고와 추고가 따라야지요. 완벽에 가까워질 때까지 다음과 또 다음은 다음에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인터넷에 올려도 늦지 않아요.

— 번역의 완성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번역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의료법인 태영의료재단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여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봉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담(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굴(靈窟)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일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신병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중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무료로 치료해 드리려고 하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실버타운 분양안내

구분	금액	비고
2인 1실	각 20,000,000원	전세
1인 1실	30,000,000원	전세

선착순 104실 / 매월 식대 400,000원(개인부담)

※ 단 입원실 사용 1개월씩, 식대 각자 부담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선진대사가 원할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 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 집을 다스림), 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 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 건강과 장수), 둘째 부(富: 부와 귀), 셋째 강녕(康寧: 편안함), 넷째 유호덕(攸好德: 덕을 좋아함), 다섯째 고종명(考終命: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술소소정액(松蘇素精液)」·「술선식(松仙食)」 등 「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본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까)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심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운동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정가 70만원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